

無助詞 名詞句와 提示 主題

任 洪 彬

(서울대학교, imhp@snu.ac.kr)

1. 序論

本攷는 語彙部의 論項 情報에 格助詞句로 명시된 論項이 아무런 助詞를 가지지 않고 쓰이는 成分의 通사, 의미적 기능을 밝히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助詞를 가지지 않은 名詞句를 ‘無助詞 名詞句’라 하고, 그것을 줄여 ‘無助詞句’라 부르기로 한다. ‘無助詞 名詞句’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1) ‘無助詞 名詞句’의 조건

가. 無助詞 名詞句는 아무런 조사도 가지지 않은 名詞句를 말한다.

나. 無助詞 名詞句는 서술어의 어휘부 論項 情報에 나타나는 論項과 관련되어야 한다.

정의상 통사적 구성에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助詞이다. 이 정의를 엄격히 따른다면, 조사를 가지지 않는 성분은 문법적 관계 바깥에 있다는 것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가지지 않는 成分의 쓰임은 실제로 아주 활발하다. 이러한 無助詞 名詞句의 正體에 대해서는 그동안 不定格 또는 格助詞 省略 또는 格助詞 非實現과 같은 것으로 파악해 왔다.

무엇보다도 먼저 格助詞를 가진 名詞句와 格助詞를 가지지 않은 名詞句가 문법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가 아니면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가 하는 문제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2. 無助詞 名詞句와 省略의 問題

‘無助詞 名詞句’는 安秉禧 (1966), 李南淳 (1988)에서 不定格으로 본 것이다. 부정격도 격이라면 無助詞 名詞句도 격을 가지는 것이 된다. 조사를 가지지 않은 名詞句의 쓰임에 흔히 적용되는 이름은 ‘格助詞 省略’과 같은 것이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2)가. 너는 지금 뭘 보니?

나. 철수 밥 안 먹니?

(2)가의 ‘너는’은 補助詞句로, 格助詞句가 아니지만 본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2)가의 ‘지금’은 시간 부사로 취급된다. 설령 그것이 명사라고 하더라도, (1)나)의 조건에 의하여 본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나)에서 ‘철수’는 ‘먹는’ 주체로 해석될 가능성이 가장 많고, ‘밥’은 먹는 대상일 가능성이 가장 많다. 달리 해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는 의미 해석에 의한 것이다. ‘떡-’의 論項 情報과 의미역-틀을 다시 (3 가, 나)와 같이 나타내고, ‘떡-’의 선택 제약을 (3 다)에 보이기로 한다.

(3)가. ‘떡-’의 論項 情報¹ : <NKP (主格 助詞句), AKP (對格 助詞句), _ >

나. ‘떡-’의 의미역-틀 : <NKP (NP=AGT), AKP (NP=THM), _ >

다. ‘떡-’의 선택 제약 : <NKP (NP=[+ Animate]), AKP (NP=[+ Concrete]), _ >

(2 나)의 ‘철수’는 [+ Human]의 자질을 가진 대상이므로, 剩餘的으로 (3 다)의 NKP 의 NP 에 대한 선택 제약 즉 [+ Animate]의 조건을 만족시킨다. ‘철수’의 [+ Human] 자질은 AKP 속의 NP 에 대한 선택 제약도 만족시킬 수 있다. ‘철수’는 [+ Human]의 자질을 가진 대상이므로 AGT 즉 행동주가 될 수 있다. 이는 (3 나)의 NKP 속의 NP 에 대한 의미역 조건을 만족시킨다. ‘철수’가 행동주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AKP 속의 NP 에 대한 THM 즉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차단된다. ‘밥’이 AGT 로 해석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THM 에 적합하다. (2 나)의 ‘철수’나 ‘밥’과 같은 無助詞 名詞句가 주어나 목적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러한 의미론적인 해석의 결과이다.

統辭的 機能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格助詞이다. 無助詞 名詞句에 대하여 格 機能을 상정하는 것은 의미 해석이나 유추에 의한 것일 뿐이다. 無助詞 名詞句는 格 機能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再構造化에 의하여 격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再構造化는 한국인의 직관적인 문법 지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정밀한 통사 분석은 재구조화 이전의 구조를 토대로 해야 한다.

3. 無助詞句와 活性化

3.1. 口語體 談話와 文語體 談話

無助詞 名詞句는 文語體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口語體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난다.²

(4)가. 드디어 힘찬 **울음소리가** 들렸다. 커다란 **눈을** 가진 순한 **짐승이** 물끄러미 바라다보고 있고 **나리**가 **고개를** 푸르륵거린다. 마지막 **사혁을** 다해 **생명을** 밀어낸 **산모는** **사내의 손에** 들려 가날프게 바둥거리는 조그만 **아이를** **땀에 범벅이** 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고, 벌어진 **입을** 다물 **줄** 모르는 순박한 **사내는** **아이엄마에** 대해 수고했다는 **말도** 할 줄 모르고 있었다.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1993), 재미있는 신약 이야기, 녹두.>

나. 임성한 (n.d.), “보고 또 보고” 6 회 일부.

ㄱ. 영애 : 웬만한 **경양식보다** 낫지.

ㄴ. 금주 : 응 떡을 만하다 야... **시어머니** 내려가셨니?

¹ 이는 격틀이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좀더 정확하게는 ‘成分 構造’라고 해야 한다. 統辭的 情報에 名詞句 중심의 論項만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語尾句도 成分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論項 構造라는 말이 일반적이므로, 정확성을 요구하지 않을 때에는 ‘成分 構造’라는 술어 대신에 ‘論項 構造’라는 술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² KAIST 말뭉치 자료와, 21 세기 세종계획의 균형말뭉치에서 전형적인 예를 가져온 것이다. 격조사를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명사가 18 회 정도 출현하는 분량의 코퍼스를 보인 것이다.

- ㄷ. 영애 : 아니 **내가** 좀 더 계시라구 했어.
- ㄹ. 금주 : 안 불편해?
- ㄱ. 영애 : 너... **시집 식구 하구두 한술밥을** 자꾸 먹어야 **내 가족 같이** 편해진다, **정두** 생기구... 무조건 '시'자 붙은 **식구** 거리 뒤 버릇하구 피하면, **자기한테두** 좋을 거 하나 없어.
- ㄴ. 금주 : 야... (감탄) **내 주 위에서 너처럼** 말하는 애 참이다.
- ㅅ. 영애 : 다 나쁜 년들이지.
- ㅈ. 금주 : (거침없는 표현에 웃음)
- ㅊ. 영애 : (시계 보고) **너 요즘 선본 거 없지?**
- ㅋ. 금주 : 음.
- ㅌ. 영애 : 팬찮은 **사람** 있는데 한번 안 만나 볼래? 여기 직원이거든.
- ㅍ. 금주 : PD?
- ㅎ. 영애 : 아니 **PD** 아니구, **경리 파트** 있어.

(4가)는 文語體의 글이고, (4나)는 對話 中心의 口語體 글이다. 格助詞句와 補助詞句 및 無助詞句의 수효와 백분율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5가). (4 가)의 格助詞句: 15 개 (83.3%)
 나. (4 가)의 補助詞句: 2 개 (11.1%)
 다. (4 가)의 無助詞句: 1 개 (5.6%)
 (6가). (4 나)의 格助詞句: 9 개 (39.1%)³⁾
 나. (4 나)의 補助詞句: 3 개 (14.2%)⁴⁾
 다. (4 나)의 無助詞句: 11 개 (47.8%)

(5가)와 (6가)는 文語體에 格助詞句가 나타나는 비율이 83.3%임에 대하여 口語體에 格助詞句가 나타나는 비율이 39.1%가 됨을 보인다. 文語體에 나타나는 비율이 2 배 이상 된다. (5 나)와 (6 나)에서 볼 때, 補助詞句가 사용되는 비율은 文語體가 11.1%이고, 口語體가 14.2%로 비슷하나, 口語體에서 그 비율이 올라가는 것이 주목된다. (5 다)와 (6 다)에서는 無助詞句의 사용이 口語體에서 현저하게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文語體에서는 5.6%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口語體에서는 47.8%나 된다. 8 배를 넘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일반화가 가능하다.

(7) 助詞句 및 無助詞句 출현에 대한 일반화

- 가. 無助詞句는 口語體 담화에 지배적으로 출현하는 경향을 보인다.
 나. 格助詞句는 口語體 담화에 비하여 文語體 담화에 출현하는 비율이 2 배 정도 높다.

³⁾이 수치는 '같이, 보다' 등을 학교 문법에 따라 격조사로 취급한 것이다.

⁴⁾이 수치는 '같이, 보다' 등을 학교 문법에 따라 격조사로 취급한 것이다.

다. 보조사구는 文語體 담화와 口語體 담화에 비등하게 나타나나, 口語體 담화에서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7)과 같은 일반화는 물론 더 많은 자료에 의한 검증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4 가, 나)만으로도 대체적인 경향은 파악할 수 있다.

3.2. 口語體 談話와 活性化

口語體의 특성으로 김지은 (1991)에서 지적된 것은 다음과 같다.

(8)가. 화자와 청자가 일정한 시/공간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다.

나. 화자의 발화 그 순간에 청자가 그것을 듣는 대화 형태이다.

다. 文語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간결하다.

라. 화자와 청자가 서로의 의식 속에서 명확하게 부각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화된다.

(8 가)가 뜻하는 것은 口語體 문장에서는 화자가 말하지 않은 대상이나 사실도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것이 活性化된 狀態(in active state)에 있는 것은 아니다. 화자의 말이나 청자의 말에 등장된 대상이나 명제, 분명히 청자의 感覺的 所與로 주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대상이 活性化된다. 口語體에는 이러한 대상이 많다. 따라서 無助詞句는 담화 장면에서 活性化된 대상과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3. 無助詞句와 助詞句의 差異

(9)는 옛날이야기의 冒頭에 흔히 쓰이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格助詞가 쓰일 수 있는 위치를 0로 나타내기로 한다.

(9)가. 옛날 옛날 한 옛날에 한 나무꾼이 서울에 살았습니다.

나. *옛날 옛날 한 옛날에 한 나무꾼 서울 살았습니다.

(9 나)는 담화 도입 문장에 無助詞句가 쓰일 수 없음을 보인다. ‘한 나무꾼’이나 ‘서울’은 活性化된 對象이 아니기 때문이다.

(10)가. 철수는 어제 산{에, ??} 갔다.

나. 철수는 어제 저 산{에, } 갔다.

다. 철수는 어제 동네 산{에, } 갔다.

라. 철수는 어제 아름다운 산{에, ??} 갔다.

마. 철수는 어제 산{에, ∅} 갔었다!

바. 철수는 일요일마다 산{에, ∅} 간다.

(10 가)는 ‘산’이 無助詞句로 쓰이기 어려움을 보인다. (10 나)와 같이 ‘저 산’과 같이 수식하는 말을 가질 때에는 크게 좋아진다. (10 다)에서는 ‘산’에 ‘동네’란 수식이 있다. 비교적 괜찮다. 반면 (10 라)에서 ‘산’은 ‘아름다운’이란 수식을 받고 있으나, 이상을 가진다. 수식어의 길이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活性化의 측면을 보기로 하자. 단순한 ‘산’은 ‘가는 행동’의 목표점(goal)의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반면 (10 나)와 같이 ‘저 산’이라고 할 때는 구체적인 산이 부각된다. ‘저 산’은 사람들이 그 곳으로 가기도 하는 산이다. 화용론적인 배경 지식의 작용이 촉발된다. 이를 ‘화용적 프레임(pragmatic frame)’ 또는 ‘화용적 액자’의 작용이라 할 수 있다. (10 다)는 왜 (10 가)보다 좋은가? ‘동네 산’의 ‘동네’라는 요소가 화용적 프레임의 작용을 촉발시키기 때문이다. (10 마)에서는 대과거의 경험이 화용적 액자에 의한 해석을 촉발시킨다. (10 마)에서도 같은 함축이 작용한다.

(11)가. 철수{가, ??∅} 영희가 온다고 말했다. (김지은 1991 참조)

나. {나, *병상에 있는 나∅} 이거 꼭 해야 해? (김지은 1991 참조)

다. 김 씨같이 점잖은 사람{이, ??∅} 설마 여자 관계가 복잡하겠어요? (김지은 1991 참조)

(11 나, 다)와 같이 수식 요소가 길면 왜 無助詞句의 성립이 제약되는가? 수식 요소가 길어지는 것은 문제의 대상이 親熟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親熟하지 않다는 것은 그 대상이 活性化되지 않은 것이다.

(12)가. 영희를 철수{가, *∅} 찾더라. (김지은 1991 참조)

나. 밥을 철수{가, *∅} 먹었다. (이두원 2003 참조, Ahn and Cho 2006b)

다. 도서관 벽에는 노란색{이, *∅} 어울려. (김지은 1991 참조)

라. 그 일에는 철수{가, *∅} 체격이다. (김지은 1991 참조)

(12 가, 나)는 대격이나 여격 뒤에 주어 無助詞句로 쓰이기 어려움을 보인 것이다. (15 나)는 이두원 (2003)에서 目的語轉移(object shift) 구문이다. 주어가 격조사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T에 있는 EPP 자질을 점검할 수 없어 非文이 된 것으로 본 것이다.⁵ (12 다, 라)는 김지은 (1991)에서 주어 외의 論項이 ‘은/는’을 가지고 주어 앞에 올 때에는 주어 無助詞句로 나타나기 힘들다고 본 것이다.

(12 가)에서 ‘영희를’은 語順 主題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뒤에 이어지는 진술은 그것에 대하여 의미 있는 진술이 되어야 한다. 그와 같은 목적에 ‘철수’를 활성 주제로 하는 진술은 적합한 것이 아니다. 이미 活性化되어 알려진 대상이나 사실은 有標的 主題를 제시하여 진술할 필요가 없다. ‘??영희는 철수 찾더라’와 같이 말하여도 같은 결과에 이른다. (12 나)도 같다. (12 다, 라)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⁵이 제약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A D-feature on a subject, which comes from overt Case, checks an EPP-feature on T.(주어가 가진 D-자질(이것은 외현적인 격에서 오는 것이다)은 T 즉 시제 요소에 있는 EPP-자질 즉 주어 요구 자질을 점검한다)” 이러한 제약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기본적인 요지는 외현적인 격만이 시제에 상정되는 주어-자질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형식적인 요건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간결하다. 그러나 활성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본고의 생각이다. 그것은 의미론적인 것이며 화용론적인 것이지, 형식적인 것이 아니다.

있다. ‘도서실 벽에는, 그 일에는’은 ‘은/는’을 가진 有標的 主題이다. 그 뒤에는 의미 있는 진술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어와 주격 조사를 가진 비활성 대상이어야 한다.

(13) 有標的 主題와 無助詞句

有標的 主題 뒤에는 無助詞句의 사용이 극히 제약된다. 이는 有標的 主題 뒤에 의미 있는 진술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비활성 대상이 오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다음과 같은 예를 보기로 하자.

(14)가. 담배 주세요.

나. 담배를 주세요.

신현숙 (1982)에 의하면, (14 나)는 ‘주의 집중’의 의미론적인 기능을 가진다. 活性化 가설에 의하면, (14 가)의 ‘담배’는 活性化된 대상이고, (14 나)의 ‘담배를’은 非活性化된 대상이다. 따라서 강조의 필요성을 더 가지는 것은 (14 나)이다. (14 가)에서도 ‘담배’에 강세를 둘 수 있다. 그 의미는 이전의 의미를 다시 되풀이하게 된다. 그러나 (14 나)에서 ‘담배를’에 강세를 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의미를 가진다.

다시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15)가. {누가, 누구} 이겼니?⁶

나. 철수{가, ∅} 이겼어.

(15 가)는 疑問詞가 주어의 위치에 나타난 것이다. 주격 조사를 가진 의문사는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물음을 나타낸다. 시험을 하는 두 사람 중 이긴 사람이 누구인가를 묻는다. 이에 대해서 (15 가)의 無助詞 疑問詞 疑問 즉 ‘누구’ 의문은 아무도 못 이길 것을 예측하고 있을 때 쓰이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가령 우리 학교에서 권투에 10 명이 출전하였다고 하자. 이긴 사람도 있고 진 사람도 있을 것이다. (15 가)의 ‘누구’ 의문문의 화자는 이긴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그 윤곽이 어느 정도 좁혀진 상태이다. 완전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승자와 패자를 묻는 것이 아니다. 이는 活性化 狀態가 의문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5 가)의 ‘누가’에 대해서는 (15 나)의 대답에 ‘철수가’와 같은 답만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無助詞句 對答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철수’가 당연히 이길 것을 예상하고 있을 때, 無助詞句가 쓰일 수 있다. 여기서도 活性化의 논리가 작용한다.

4. 無助詞句 主題 假說

⁶Ahn and Cho (2006b)에서는 주어 의문사구인 ‘누구’는 담화-연계적(D-linked) 해석만을 가지나, 목적어 의문사구 ‘누구’는 담화-연계적 해석이나 비담화-연계적 해석을 모두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주어가 無助詞句인 경우와 목적어가 無助詞句인 경우를 구별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두 대상은 모두 活性化 논리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無助詞句에 대하여 安秉禧 (1966) 및 李南淳 (1988) 등 외에도 Kim (1999)의 ‘융합(incorporation) 假說’과 Ahn and Cho (2006a, b)의 주어핵 가설과 담화-연계설이 있다. Kim (1999)이나 Ahn and Cho (2006a, b)에서는 隣接性 制約을 중시한다. 주로 目的語가 無助詞句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러나 主語도 無助詞句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否定할 수 없는 事實이다. 본고는 無助詞句가 提示 主題의 하나라는 사실에 力點을 두고자 한다.

(16) 無助詞句의 제시 주제 가설

名詞句가 助詞 없이 쓰인 無助詞句는 ‘無助詞句 主題’로 본다. 無助詞句 主題는 提示語의 위치에 상정되며, 이는 일종의 ‘提示 主題’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無助詞句를 提示 主題로 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보기로 한다.

첫째, 이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대답은 無助詞句를 서술어의 어휘부 論項 情報에 의해서는 正規 論項으로 분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가)를 (17 가)로 다시 가져오고, (2 나)를 (17 나)로 다시 가져오기로 한다.

(17)가. ‘먹-’의 論項 情報 : <NKP (主格 助詞句), AKP (對格 助詞句), _ >

나. 철수 밥 안 먹니?

(17 가)의 情報를 이용하여 NKP 나 AKP 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NK 즉 주격 조사나 AK 즉 대격 조사를 가진 성분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17 나)에서는 NKP 나 AKP 로 분석할 수 있는 재료가 찾아지지 않는다.

둘째, 無助詞句가 正規 論項으로 분석될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주제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언급 대상성’을 주제의 정의적 속성으로 보는 한, 문장에 등장하는 모든 주요 의미 화용적인 대상은 주제가 될 수 있다.⁷ 이에 의하여 통사적 분석의 잉여 성분에 주제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며, 한국어 문장 구조에 대한 통사 분석에서 이는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無助詞 名詞句 주제를 ‘無助詞句 주제’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주제를 도입하는 특수한 장치에 의한 주제와 補助詞句에 의한 主題를 ‘有標的 主題’라 할 수 있는데, 無助詞句도 조사를 가지지 않은 것이지만, ‘有標的 主題’의 하나가 된다.

셋째, 無助詞句는 정규 論項은 아니지만, 정규 論項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그것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은가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補助詞 主題에 대해서도 동일한 질문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無助詞句 主題’를 正規 論項과 같이 분석하는 것은 助詞句와 無助詞句의 차이를 無化시키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18)가. 철수가 밥을 먹는다.

나. 철수가 밥을 죽을 먹는다.

(19)가. 철수가 밥 먹는다.

⁷이에 대해서는 임흥빈 (2005)에서 다룬 바 있다.

나. 철수가 밥 그것을 먹는다.

(18 가)의 ‘밥은’을 학교 문법에서와 같이 목적어로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밀한 분석의 성격을 띤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정규의 목적어가 없을 때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것으로 再構造化된 뒤에 그러한 분석이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분석은 당장 (18 나)의 예를 처리할 수 없게 된다. 정규의 목적어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19 가)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밥’은 대격 조사를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정확하게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 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당장 (19 나)를 처리할 수 없게 된다. 정확하게 목적어 형식을 갖춘 ‘그것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엄격한 통사 분석이 (19 가, 나)의 ‘밥’을 목적어라고 해서는 안 된다.

넷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助詞句와 無助詞句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無助詞句는 활성 상태에 의한 해석을 필요로 하는 데 대하여 助詞句는 그러한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活性 狀態에 의한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은/는’을 비롯한 다른 補助詞 主題나 ‘이/가’ 및 ‘을/를’ 과 같은 보조사적인 주제에서도 나타나는 일이다.

다섯째, 無助詞句와 格助詞句가 항상 일 대 일의 對應 關係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우선은 無助詞句에 대하여 정확한 格助詞句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증시할 필요가 있다.

(20)가. 철수 영희 싸웠다.

나. 철수가 영희와 싸웠다.

다. 철수와 영희가 싸웠다.

라. 철수가 영희하고 싸웠다.

이 밖에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다. (20 가)가 (20 나-라) 중 어느 것에 정확하게 대응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편의상 어느 하나에 대응시킬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의 선택은 나머지 가능성을 부당하게 모두 배제하였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⁸ 無助詞句의 기능이 活性 狀態를 반영하는 것으로 정립될 수 있는 것이므로, 無助詞句를 다른 格助詞句로 환원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여섯째, 無助詞句 文章은 사건 현장에서 어떤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그것을 기술하는 문장에 잘 쓰이기 어렵다. 다음 예를 보자.

(21)가. 아아, 공기{가, *∅} 청량하구나!

나. 어머니, 꽃{이, ?? ∅} 활짝 피었네!

다. 이빨싸, {*나, 내가} 지갑을 안 가져왔네!

라. 웬 일이지? 팔{이, *∅} 아파.

마. 어랍쇼? 눈{이, *∅} 오네.

⁸‘와/과’는 文語體, ‘랑/이랑, 하고’는 口語體로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얼굴이 꽃과 같이 아름답다’를 ‘*얼굴이 꽃하고 같이 아름답다’나 ‘*얼굴이 꽃이랑 같이 아름답다’고 할 수 없다.

- 바. 에그머니나, 저놈이 사람{을, ??} 때려?
- 사. 이제 보니, 저놈이 차{를, ??} 망치는구나!

(21)는 現場性을 강하게 가지는 감탄사나, 문장이나 도입부를 앞에 가지는 예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요소 뒤에 오는 문장을 ‘현장 발화문’ 즉 ‘即發文’이라 할 때,⁹ 無助詞句는 現場 發話文 즉 即發文에 쓰이기 어렵다.¹⁰ 即發文은 이전 담화와의 관련을 거의 가지지 않는 문장으로, 無助詞句 문장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것은 다른 有標的 主題文과 성격을 共有하는 부분이다.

일곱째, 특별히 일상에서 잘 쓰는 표현이나 慣用的 意味를 가지는 경우 외에 無助詞句 主題文은 內包文에 잘 쓰이지 않는 特性을 가진다.

- (22)가. ??저 신사 찾은 밥이 이것이나?
- 나. ??*너 만난 사람이 이 사람이나? (‘너’가 주어와 관련되는 경우)
- 다. ??*그 하는 말이 다 이 책에 있더라.
- 라. ??어디서 책 찢는 소리가 들린다.
- 마. ??봉투 말아서 흙 먹이는 일은 힘이 든다.
- 바. ??책 펴서 글자 깎는 사람을 보았다.

(22 가-바)는 無助詞 名詞句가 관계절에 쓰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22 가-다)는 關係節에 주어 관련 無助詞句가 쓰인 예이다. 거의 성립하지 않는다.¹¹ (22 라-바)는 관계절에 목적어 관련 無助詞句가 쓰인 예이다. 성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22 라)의 ‘책 찢는 소리’ (22 마)의 ‘봉투 말아서 흙 먹이는 일’ (22 바)의 ‘글 펴서 글자 깎는 사람’은 일상에서 잘 쓰는 표현이 아니다. 이런 특이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에 이상을 보인다. 반면, 일상적인 표현은 잘 성립한다. (22 라-바)를 다음과 같이 바꾸어 보기로 한다.

- (22')라. 어디서 책 읽는 소리가 들린다.
- 마. 봉투 접어서 폴 붙이는 일은 힘이 든다.
- 바. 책 펴놓고 글씨 쓰는 사람을 보았다.

(22'라, 마, 바)는 아무런 이상을 가지지 않는다. ‘책 읽는 소리, 봉투 접어서 폴 붙이는 일, 책 펴놓고 글씨 쓰는 사람’은 일상에서 잘 쓰는 표현이다. 이들은 특정한 의미로 거의 굳어진 표현이다. 특정한 의미로

⁹ ‘現場 發話文’ 즉 ‘即發文’은 Lambrecht (1994)적인 의미에서 ‘문장 초점 (sentence focus)’인 문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문장 초점은 문장에 쓰인 모든 요소가 신정보가 된다. ‘My car broke down.’과 같으면, 전제된 사실이 없고, 단언되는 것도 문장 전체이며, 초점 영역도 문장 전체이다. ‘즉발문’은 쓰임문의 일종으로, 전제된 사실을 거의 가지지 않는 담화의 첫 문장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¹⁰ 목적어의 경우는 주어의 경우보다 그 예를 찾기가 어렵다. 목적어는 동사와 합하여 익은 말, 즉 일종의 관용적 표현이 되는 경향을 보이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¹¹ 주어라고 어느 경우에도 성립이 제약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예는 아무런 이상을 가지지 않는다. 일상적인 일, 유형화된 일을 나타내는 표현과 관련된다.

- 가. 사람 사는 곳이 다 이렇지 뭐.
- 나. 사람 하는 말이 말 같지 않나?
- 다. 그 사람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굳어진 표현은 왜 無助詞句를 선호하는가? 無助詞句는 활성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표현과 관련하여 活性化된 대상에 無助詞句를 쓰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이에 대해서 (22 라)의 ‘책 찢는 소리,’ (22 마)의 ‘봉투 말아서 흙 먹이는 일,’ (22 바)의 ‘글 펴서 글자 깎는 사람’은 일상에서 잘 일어나는 일이나 일상에서 잘 쓰는 표현이 아니다. 따라서 格助詞句를 써야 한다. 그것이 非活性的 對象을 나타내는 방식인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22 가-바)와 같은 현상이다. 無助詞句가 內包文에 쓰이기 어려운 특성을 보이는 것은 다른 有標的 主題 표지가 內包文에 잘 나타나지 않는 現象과 性格이 平行的인 것이다.

이는 無助詞句가 주제 표현의 한 방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5. 無助詞句와 提示語

여기서 제시하려는 것은 無助詞句는 提示語 구성의 提示語가 지시 성분이나 복귀 성분을 가지지 않는 것과 평행적인 기능을 가진다는 것이다. 우선 제시어 구성의 지시 성분이나 복귀 성분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보기로 한다.

(23)가. 철수, 우리는 그를 믿는다.

나. 철수, 우리는 믿는다.

다. 철수, 그가 우리는 믿는다.

(23 가)는 전형적인 문장 제시어 구성을 보인 것이다. ‘철수’는 문장 제시어이고 밑줄 친 ‘그’는 복귀 요소이다. 제시어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믿다’의 목적 대상과 관련된다. 그 기능은 지시 성분 ‘그를’에 의하여 명시되고 있다. (23 나)에서는 지시 성분이 찾아지지 않는다. 제시어 ‘철수’의 기능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는 (23 가)와 다름없다. 그러나 ‘철수’를 주어와 연관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23 다)와 같은 문맥을 상정하는 경우이다. 지시 성분 ‘그를’이나 ‘그가’는 제시어와 연관 해석되는 성분이 어떤 성분인지를 밝히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24)가. 우리는 아버님 믿어요.

나. 우리는 아버님 당신을 믿어요.

다. 우리는 예수 {%그를, ∅} 믿어요.

(24 가)의 ‘아버님’은 無助詞句로, 특정한 상황의 ‘믿는 것’과 관련하여 당연히 전제되는 인물이다. (24 나)의 밑줄 친 부분은 제시-지시 구성으로 ‘당신’은 문법적 기능을 명시함과 동시에 화자와의 관계를 드러낸다. 화자에 대하여 ‘아버님’은 친밀하면서도 높이는 대상이다. (24 다)에서 ‘그를’을 쓰는 것은 일반적인 용법이 아니다. 이러한 말을 쓰면, 화자는 ‘예수’와 동시대인으로 친구 사이인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

無助詞句로 쓰면 ‘믿는 것’과 관련하여 당연히 떠오르는 인물이 ‘예수’임을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제시어 구성에서 제시 성분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25) 提示語 구성에서 지시 성분의 역할

가. 提示語 구성에서 지시 성분은 제시어와 연관 해석되는 성분의 통사적 위치를 명시한다.

나. 指示語의 종류에 따라 화자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이제 無助詞句를 제시어와 평행적인 것으로 보면, 서술어와 관련하여 문제의 대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자명한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화자와의 관계도 상황 속에서 자명한 것으로 전제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다음 과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26) 無助詞句와 제시어

無助詞句는 지시 요소를 가지지 않는 제시어의 일종이다. 문제의 대상이 서술어와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자명하고, 화자와의 관계도 상황 속에서 자명한 것으로 전제된다.

제시어 구성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몇 가지 예를 보기로 하자.

(27)가. *옛날 옛날 한 옛날에 한 나무꾼, 그가 서울에 살았습니다.

나. *옛날 옛날 한 옛날에 한 나무꾼이 서울, 거기에 살았습니다.

(27)의 예는 (9)에서 無助詞句가 성립하지 않았던 예이다. 제시어 구성도 담화 도입문에 쓰일 수 없음이 확인된다.

(28)가. *아아, 공기 그것이 청량하구나!

나. *어머나, 꽃 저것이 활짝 피었네!

(28)은 현장 발화문에 제시-지시 구성을 적용해 본 것이다. 성립하지 않는다. 無助詞句 구성과 평행적임을 알 수 있다.

(29)가. ??철수 그가 나에게 준 책이 이것이나?

나. *나는 눈 그것이 내리는 거리를 걷는다.

(29)는 관계절 내에 제시-지시 구성을 상정해 본 것이다. 성립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은 無助詞句를 지시 요소 혹은 복귀 요소를 가지지 않는 제시어의 하나로 보아 큰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

(30)가. 네가 책 치웠니?

나. 네가 여기 있던 책 치웠니?

(30 가)의 밑줄 친 ‘책’은 단순한 無助詞句인지 제시어인지 구별할 수 없다. 책 뒤에 휴지가 있으면 제시어의 성격이 분명해진다고도 할 수 있으나, 無助詞句라고 뒤에 휴지를 두지 말하는 법이 없다. 그러나 모든 제시어가 無助詞句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31)가. 21 세기의 지구, 우리의 마음은 착잡하다.

나. 너, 이걸 내 차다.

다. 김달중, 이걸 내 차다.

(31 가-다)의 문두에 주어진 제시 성분에 대해서는 후행문에서 그것을 가리킬 수 있는 지시 성분을 설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31'가-다)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생략된 성분의 상정이 가능하다. (31 나)의 ‘너’ 및 (31 다)의 ‘김달중’은 부름말¹²의 성격을 띤다.

(31')가. 21 세기의 지구, 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착잡하다.

나. 너, e 명심해야 할 터인데, 이걸 내 차다.

다. 김달중, 네가 명심할 것이 있는데, 이걸 내 차다.

(31'가)에서는 밑줄 친 부분 중의 ‘그’가 제시 성분을 가리키는 말이고, (31'나)의 ‘너’에 대해서는 밑줄 친 부분의 ‘명심하다’의 空範疇 主語인 ‘e’가 그것과 조응된다. (31'다)에서는 ‘김달중’을 ‘네’와 같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無助詞句는 제시어 중에서 論項 成分과 관련되는 성분이 지시 요소 혹은 복수 요소를 가지지 않은 구성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6. 결 론

無助詞句는 活性化된 대상에 대하여 잘 쓰인다. 이전 담화나 담화 장면에서 주어지지 않은 대상도 無助詞句로 쓰일 수 없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대상을 청자가 확인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는 화용적 수용(accommodation)의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특성은 無助詞句가 그 자체 고유한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결코 格助詞句와 동일시할 수 없다.

無助詞句는 대부분의 경우 정규 문장 성분으로 분석될 수 없다. 대부분의 論項 情報는 格 助詞句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無助詞句를 여기서는 ‘無助詞句 주제’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왜냐하면, 어휘부에 주어진 論項 情報로는 無助詞句를 분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통사 분석의 나머지로 剩餘 成分이 된다. 문장에

¹² 부름말은 호격어가 될 것이나, 호격이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부름말로 부르고 그 예를 여기에 포함시킨다.

나타난 모든 주요 의미. 화용적 대상이 화용적 주제의 자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통사적 분석의 잉여 성분에 대하여 주제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며,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사실의 하나는 無助詞句 문장이 現場 發話文에 쓰이기 어려운 현상, 談話 導入文에 쓰일 수 없는 현상, 關係節에 쓰이기 어려운 현상 등에 주목하였다. 이는 전형적인 有標的 主題와 그 성격을 공유하는 것이다. 無助詞句를 성분 提示語 구성과 비교함으로써 無助詞句가 일종의 성분 제시어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였다. 모든 提示語를 無助詞句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無助詞句는 論項과 연관 해석되는 성분이 지시 성분 혹은 복귀 성분을 가지지 않는 제시어와 평행적인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보였다. 無助詞句는 일종의 제시 주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無助詞句가 서술어와 일종의 관용적 표현, 즉 익은 말을 이루는 것은 문제의 대상의 活性化 狀態 및 類型化와 관련된다.

참고 문헌

- 김미령 (2006), 국어의 격 표지 교체와 의미역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金智賢 (2003), 現代韓國語의 談話における '無助詞'의 機能について, 東京大學 修士學位論文.
- 김영희 (1988), 한국어 통사론의 모색, 탐출판사.
- 김영희 (1989), "한국어 제시어의 문법," 주시경학보 4, 주시경연구소/탐출판사, 114-138. [참고] 김영희 (1998) 재록, 355-385.
- 김영희 (1998), 한국어 통사론을 위한 논의, 한국문화사.
- 김지은 (1991), "국어에서 주어와 조사 없이 나타는 환경에 대하여," 한글 212, 한글학회, 69-87. [참고] 남기심 편 (1998) 재록, 233-250.
- 김창섭 (1997), "'하다' 동사 형성의 몇 문제," 관악어문연구 22,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46-267.
- 김창섭 (2001), "'X 하다'와 'X 를 하다'의 관계에 대하여," 어학연구 37(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63-85.
- 남기심 편 (1998), 국어 문법의 탐구 4: 되짚어 본 국어 문법의 문제들, 태학사.
- 남기심·고영근·이익섭 편 (1975), 현대국어문법, 계명대학출판부.
- 남기심·고영근 (1993), 표준 국어 문법론; 개정판, 탐출판사.
- 박병수·김종복 편 (2004), 한국어 격현상 연구, 태학사. [참고]. Park, B.-S. and Kim J.-B. (eds.) (2004).
- 안병희 (1966), "부정격(Casus Indefinitus)의 정립을 위하여," 동아문화 6, 동아문화연구소. 남기심 외 편 (1975) 재록, 99-101.
- 이남순 (1988), 국어의 부정격과 격표지 생략, 탐출판사.
- 이남순 (1998), "격표지의 비실현과 생략," 국어학 31, 국어학회, 340-360.
- 이두원 (2003), "Syntactic Effect vs. Output Effect," 한국언어학회 가을학술대회 발표요지.
- 임홍빈 (2005), "화용적 주제와 문법적 주제," 한국언어학회, 2005 여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 Ahn, H.-D. and Cho, S.-E. (2006a), "Unpronounced Case Markers and Apparent Subject-Object Asymmetry," *Studies in Modern Grammar*/현대문법연구 43, 현대문법학회, 55-80.
- Ahn, H.-D. and Cho, S.-E. (2006b), "Missing Case in Action: Saving the Stranded P," ms. 우리말연구모임.
- Chai, M.-H., Cho, S.-Y., and Lee, N.-G. (2004), "Case Realization and Word Order Variation, in Park and Kim (eds.) (2004), 345-368.
- Kim, K.-S. (1999), "Case Deletion in Korean," *WECOL 99, Proceedings of the Western Conference on Linguistics*, vol. 11, 225-236.
- Kuroda, S.-Y. (1972), "The Categorical and the Thetic Judgements," *Foundatons of Language* 9, 153-185.
- Park, B.-S. and Kim J.-B. (eds.) (2004), *Perspectives on Korean Case and Case Marking*, Thaeaksa. [참고] 한국어 이름: 박병수·김종복 편 (2004), 한국어 격현상 연구, 태학사.
- Lambrecht, K. (1994),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Topic, Focus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s of Discourse Referen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고석주 외 6 인 역 (2000), 정보 구조와 문장 형식, 월인)